

False Sleeves의 유형분석과 복식사적 고찰

권수현*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Analysis of Types and Historical Review of False Sleeves

Soo-Hyun Kwon* · Soon-Che K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투고일: 2010. 10. 22, 심사(수정)일: 2010. 11. 2, 게재확정일: 2010. 11. 25)

ABSTRACT

False sleeves are 'the sleeves that are attached to clothes but exist just as a part without any function to put arms in them.' They are different from sleeves to put arms in them and are to follow the trend or a way of wearing clothes. They are mostly found in medieval Europe's decorative sleeves named 'Hanging sleeves', but they are also found in Eastern region, too. They are found in sleeves that attached women's headgear in East and Middle Asia, and also in high-class male caftan in Ottoman Turk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False sleeve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by shapes. The first ones are the decorative sleeves of which trunk-shaped sleeves hang around the whole or part of the arm hole but have no function to put arms in them; this is called as 'sleeve-shaped False sleeves'. These sleeves are found in women's headgear in medieval Europe, Ottoman Turk, and East and Middle Asia. False sleeves in Europe and Ottoman Turk played a role in showing wealth and power while those in East and Middle Asia had a great role in highlighting the costume's decorative effect. The second ones are the sleeves hanging down from the arms by attaching long cloth to the arm hole, in design; these are named as 'cape-shaped False sleeves.' This style is found only in medieval Europe, and presumably, these cape-shaped false sleeves may have played a role in boasting of one's wealth and power.

Key words: cape-shaped False sleeves(망토형 폴스슬리브), headgear(쓰개),
high-class male caftan(상류층남자 카프탄), trunk-shaped sleeves(통형소매),
sleeve-shaped False sleeves(소매형 폴스슬리브)

I. 서론

소매는 팔을 감싸기 위해 통형으로 구성함으로써 두 팔을 꿰어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동을 기준으로 가장 다양한 활동범위를 지니고 있는 의복구성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행이나 의복의 착장 방식에 의해 팔을 꿰는 기능을 넘어 의복의 일부로서 장식의 기능만 하는 소매도 있는데, 고딕과 르네상스 시대에 걸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유행한 장식소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형태는 소매의 한 부분에 slash가 있어 그 사이로 팔이 빠져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내려뜨려 진 경우와 통형의 소매나 망토와 같은 긴 천이 진동의 일부에 달려 팔 뒤쪽으로 내려뜨려 진 경우의 것들로서, 이들을 hanging sleeves로 명명하고 있기도 하다.¹⁾ 이처럼 팔을 꿰지 않은 채 의복의 일부분으로써만 기능만을 하는 소매는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의 여성용 쓰개에 달린 소매, 그리고 16, 17세기의 오스만튀르크 남자복식의 소매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복식에서 나타난 소매들은 hanging sleeves와 흡사한 면도 있으나 등장배경이나 착장방법 등에서 또 다른 특징을 보여 서양 복식에서 일컬어지는 'hanging sleeves'라는 용어로 함께 묶어 명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옷에 부착되어 있으나 팔을 꿰지 않은 채 의복의 한 부분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형태의 소매'들을 false sleeves라고도 지칭하고 있음²⁾에 근거하여 hanging sleeves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false sleev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도록, 유물자료, 인터넷 자료 등에서 false sleeves의 정의에 부합하는 총 141건의 그림 및 사진을 추출하여 그 유형을 지역별·시기별로 나누어 문헌과 함께 분석하고 특징과 쓰임새 및 세부적인 형태와 그에 따른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이로써 통상적인 소매와는 다른 기능을 하였던 false sleeves에 대한 복식문화사적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부분적이거나 나라별 상호 간 복식문화 교류의 일면도 함께 추측하여 보고자 하였다. 더욱이 근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false sleeves가 Fendi³⁾, Jil Sander⁴⁾, Vivienne

Westwood⁵⁾와 같은 명품 Collection에도 등장하여 복식디자인의 일면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소매 디자인을 위한 복식문화사적인 자료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고대 페르시아의 아파다나 조공도⁶⁾와 중국수, 당 대의 둔황 벽화⁷⁾에서도 소매에 팔을 끼우지 않은 채 의복을 착용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아파다나 조공도 인물은 전개형의 의의를 어깨에 걸친 모습으로써 일상적으로는 팔을 끼워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둔황벽화에 나타난 번령착수(翻領窄袖)의 포의 경우는 또 다른 예에서 팔을 끼워 입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상황이나 착장자의 단순한 기호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어 false sleeves의 유형과 특징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II. False Sleeves의 지역별·시기별 특징

False Sleeves는 서양에서는 13~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동양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 복식에서 시기별로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1. 유럽

유럽에서는 고딕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걸치는 13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의 복식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의 유럽은 십자군 원정 이후 동서 간 문물의 유입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부르주아 층의 형성, 인본주의의 개화 등으로 인해 종교적이고 정적인 생활에서 동적인 생활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의복 구성도 입체적인 인체에 걸맞은 합리적인 구성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서 몸에 잘 맞고 활동성이 뛰어난 set-in-sleeve가 고안되었고, 점차 새롭고 독특하게 디자인된 다양한 형태의 소매가 복식 전체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바꾸어 주면서 보다 장식적인 false sleeves의 등장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중세 유럽의 중심 세력으로써 유럽 패션을 주도하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복식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로 false sleeves의 시기에 따른 변화와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1) 영국

영국 복식에서는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복식에서 false sleeves가 확인된다. <그림 1~4>를 포함한 총 18건의 복식 스케치 및 초상화를 분석한 결과, 13세기에는 남자의 cotehardie나 houppelande에서 false sleeves가 나타나고 있고<그림 1>⁸⁾, 14세기에는 남자의 houppelande와 doublet⁹⁾, 여자 surcoat 등 남녀복식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15세기의 복식에서는 남성의 doublet과 여성의 robe 등에서 보이는데, 때로는 길게 내려뜨려진 false sleeves의 끝을 묶어 올리기도 하였다<그림 2>¹⁰⁾.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인 <그림 3>¹¹⁾에서는 false sleeves를 set-in-sleeve의 진동둘레에 덧붙여 팔 아래로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더해주고 있다. 17세기 초까지 남녀복식 모두에서 모습이 보이며 <그림 4>¹²⁾와 같이 여성복식에서는 매우 짧은 망토형태의 false sleeves도 확인되나 이후 점차 사용 예를 찾을 수가 없다.

2) 프랑스

프랑스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복식 스케치 및 벽화, 초상화 총 9건에서 false sleeves가 나타난다. 14세기 복식에서는 남자의 gardcorp와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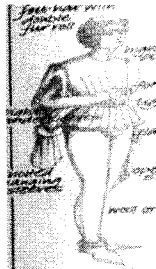
surcotover에서 false sleeves가 확인되는데 <그림 5>¹³⁾의 gardcorp는筒 모양의 긴 소매가 달렸고 진동 선에 트임이 있어 팔이 밖으로 나오며 <그림 6>¹⁴⁾의 surcotover는 진동에 긴 소매가 달렸는데 팔을 끼우지 않고 소매를 팔 뒤쪽으로 늘어뜨리고 있다. 이처럼 어깨에 긴 false sleeves가 달린 형태는 16세기까지 남녀 복식 모두에서 지속된다.¹⁵⁾ 15세기에는 남자의 pourpoint, jerkin 등에 부피가 커진 false sleeves를 달았는데 소매 단에 선을 두른 포피장식이 특징적이다<그림 7>¹⁶⁾. 16세기에 들어오면 여성의 robe에서 false sleeves가 확인된다. <그림 8>¹⁷⁾에서 주인공 여성의 robe에 부착된 소매는 긴 망토형 false sleeves로서, 트인 가장자리에는 선 장식을 하였고 소매의 중간을 한 번 징거춤으로써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남녀 복식 모두에서 나타났던 false sleeves는 17세기 이후의 복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3) 스페인

스페인 복식에서는 왕실 초상화 등, 총 12건의 복식을 분석하였는데 주로 여성들의 복식에서 false sleeves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15세기 여성 robe에서 보이는 false sleeves는 망토처럼 진동에 봉제 되어 있는 소매가 팔 뒤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속옷으로 입은 chemise가 노출되어 있다 <그림 9>¹⁸⁾. 16,17세기에도 여성의 robe에 false sleeves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소매형태의 false



<그림 1> 13세기 남자복식
Costume 1066-1990s,
1994, p. 15.



<그림 2> 15세기 남자복식
Costume 1066-1990s,
1994, p. 30.



<그림 3>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초상,
1592 서양복식문화사,
2001, p.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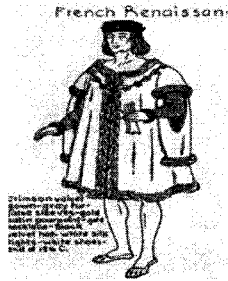
<그림 4> Portrait of Mary Herbert, 20,000 years of fashion, p. 239.



〈그림 5〉 The Tale of Meliacin, late-13C~mid-14C, *세계 패션사 1*, 1998, p. 144.



〈그림 6〉 14세기 프랑스 여자의 복식, *The Mode in Costume*, 1958, p. 53.



〈그림 7〉 15세기 프랑스 남자의 복식, *The Mode in Costume*, 1958, p. 83.



〈그림 8〉 Ball for the wedding of the Duc de Joyeuse, 1581-2, *서양 패션의 역사*, 1995, p. 108.



〈그림 9〉 페르난도와 이사벨의 결혼, 15C. *Spain A history*, 2006.



〈그림 10〉 Infanta Isabella Clara Eugenia of Spain, 1599.



〈그림 11〉 Portrait of a Spanish Princess, 1615. *20,000 years of fashion*, p. 220.



〈그림 12〉 Suit worn by Gustavus Asolphus, 1620. *20,000 years of fashion*, p. 255.

sleeves는 수구를 오므려 지갑이나 손수건을 보관하는 포켓의 역할¹⁹⁾을 하는 특징도 보인다 <그림 10>²⁰⁾, <그림 11>²¹⁾. 이런 false sleeves는 스페인 모드라고 하여 17세기까지 유럽 전역에 유행되었다²²⁾고 한다. 이는 당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 전역을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기 위해 공주나 귀족의 딸들을 유럽 여러 나라 왕실에 정략결혼을 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식의 false sleeves가 유럽 전역에 유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7세기 남자의 pourpoint에 보이는 false sleeves는 아주 드문 예인데 여자복식에 나타나는 false sleeves보다 소매통이 좁다<그림 12>²³⁾.

4) 이탈리아

이탈리아 복식에서는 총 12건의 그림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15세기에는 남자의 houppelande와 여자의 robe에서 false sleeves가 나타난다. Houppelande의 false sleeves는 주로 망토형태로써 가장자리에 모피를 장식한 모습도 나타나며, robe의 false sleeves는 진동에 트임을 주어 그 사이로 팔을 뻗 모습으로 매우 화려한 직조의 천을 사용한 예도 있다<그림 13>²⁴⁾, <그림 14>²⁵⁾.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함²⁶⁾으로 생각된다. 16~17세기 초상화에서는 여자의 robe에게서만 false sleeves가 확인되나, 16세기 베니스에서는 기품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일하지 않는 계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어깨나 팔꿈치에 리본 등을 사용하여 false sleeves를 붙였다²⁷⁾는 기록으로 보아 false sleeves는 귀족 남녀의 복식 모두에서 즐겨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확인된 소매형의 false sleeves



〈그림 13〉
동방박사의 행렬,
1459, 르네상스의
비밀, 2007, p. 189.



〈그림 14〉 보카치오
아디마리의 결혼, 15C,
서양 패션의 역사,
2005, p. 75.



〈그림 15〉 Italian
women, 1581, *A
well-fashioned image*,
2002, p. 31.



〈그림 16〉 Isabella
Clara Eugenia, 1611.
*20,000 years of
fashion*, p. 250.



〈그림 17〉 오스트리아의
마가리타 여왕, 1609.



〈그림 18〉 Portrait of
Elizabeth, 1590.
*20,000 years of
fashion*, p.2 45.

는 소매통이 넓고 손목까지 오는 길이의 것과 〈그림 15〉²⁸⁾와 같이 소매통이 좁고 길이가 매우 긴 두 가지 형태의 false sleeves가 있다. 17세기 복식에서는 망토형태와 〈그림 16〉²⁹⁾과 같은 소매형태의 false sleeves가 병존한다. 〈그림 16〉은 〈그림 10〉과 동일한 형태로 16~17세기 이탈리아 복식에 나타난 false sleeve는 스페인복식에서 보는 false sleeve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는 스페인의 복식문화가 이탈리아에 영향을 준 결과로 생각되며,³⁰⁾ 이러한 추론은 16세기 중반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왕자 카를 5세가 이탈리아를 병합³¹⁾했던 사실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 16세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상류층 여자복식에도 false sleeves가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7〉³²⁾,〈그림 18〉³³⁾. 특히 〈그림 17〉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의 여왕이자 스페인의 왕 펠리

페 3세의 육촌 누이인 합스부르크가의 여인으로 〈그림 10〉과 동일한 형태의 false sleeves를 착용하고 있다. 1599년 펠리페 3세와 결혼하여 스페인의 왕비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페인 복식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1〉은 이상 유럽 여러 나라의 복식에 나타난 false sleeves의 특징을 나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상을 보면, 13세기에서 15세기 이전까지 소매통이 좁던 false sleeves는 15세기 이후 부피가 커지고, 더욱이 14세기 즈음부터 모피가 상류층에서 널리 애용되고 자수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동방에서 들어온 진기한 물품들이 복식의 재료로 사용됨으로써³⁴⁾, 모피, 자수, 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는 예가 많아진다. 이는 13세기 중엽까지의 종교적 분위기가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며 인간중심으로 변화되고³⁵⁾, 복

〈표 1〉 중세 유럽 지역에 나타난 false sleeves의 특징

나라	등장시기	나라별 특징	
		나타난 복식	형태별 특징
영국	13~17C	cotehardie, houppelande, doublet, surcoat, robe 등	① slash를 내어 그 사이로 팔을 빼내며 길이가 길어 끝을 묶기도 함. ② 발끝까지 오는 망토형태의 false sleeves가 나타남. ③ 모피나 자수, 보석 등으로 장식하여 매우 화려함.
프랑스	14~17C	gardcorp, surcoattover, pourpoint, robe 등	① 14~16세기에 남녀복식 모두 어깨에 긴 false sleeves가 달려있는 것이 지속됨. ② 15세기부터 false sleeves의 부피가 커짐. ③ 16세기 여성 robe의 망토형 false sleeves는 중간을 한번 정겨주어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함.
이탈리아	15~17C	cotehardie, houppelande, robe 등	① false sleeves에 화려한 직조의 원단을 상요하고 모피로 가장자리를 두르는 등 자신의 부를 과시함. ② 16~17세기까지 남녀 복식 모두에서 사용됨.
스페인	15~17C	robe 등	① 팔을 막히게 하여 지갑이나 손수건을 보관하는 포켓의 역할을 하는 false sleeves가 유행

식에서도 인체 미를 강조하기 위해 남자복식에서는 인위적으로 어깨와 소매, 가슴을 과도하게 부풀렸으며, 여자복식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소매와 스커트를 부풀리게 되는데³⁶⁾ 이러한 과정에서 false sleeves의 부피도 크고 화려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false sleeves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는 배경에는 그 당시 경제 강국이었던 네덜란드의 검소하고 합리적인 의상이 유럽 패션을 지배하게 되며 복식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거창함 대신 활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동안의 유럽은 국가 간 전쟁이나 동맹을 목적으로 한 왕실끼리의 결혼 등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복식문화도 유럽 전반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유럽 전역의 false sleeves 형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주머니처럼 사용할 수 있는 false sleeves는 스페인 복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2.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소매는 공통적으로 직선의 진동선에 직사각형의 소매를 이어 붙이는 평면적인 구성의 소매이다. 따라서 소매길이의 길고 짧음, 소매통의 넓고 좁음, 배래의 모양 등에 따라 소매의 명칭을 달

리할 뿐으로, 구성상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의 소매는 보이지 않으나 팔을 꿰지 않고 착용하는 복식에서 false sleeves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1) 한국

한국 복식에서는 여성의 쓰개로 사용된 장옷에서 false sleeves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장옷은 조선 초까지 남녀공용의 外衣인 長衣가 조선 시대 지침으로 삼았던 내외법의 영향에 따라 여성의 폐면용 쓰개로 착용법이 변화된 옷이다. 장옷이 여성용 쓰개로 사용되면서 점차 깃은 좌우 동일한 형태가 되며 무와 쇠의 너비가 넓어지고, 착용 시 머릿기름이 깃에 묻지 않도록 머리가 닿는 부분에 다른 감을 대는³⁷⁾ 등, 일반적인 의의와 달리 형태상 쓰개로서의 모양을 갖추어 가는 데 반하여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소매는 퇴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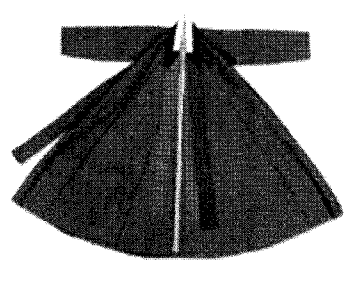
장옷이 의의에서 쓰개로 그 쓰임새가 변화된 시기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풍속화에서 쓰개로 착용된 장옷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8세기 이후의 출토유품과 전세유품에서 확인되는 장옷을 정리하였다. 우선 18세기 후반의 총 8건의 풍속화에서 보는 장옷은 부녀자 혹은 기녀들이 머리와 어깨에 걸치거나, 접어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으로, 소매에 팔을 끼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그림 19)³⁸⁾,(그림 20)³⁹⁾. 또한, 출토유품에는 안동 권



〈그림 19〉 김홍도. 탁발.
조선의 미인을 사랑한
신윤복, 2009. p. 59.



〈그림 20〉 신윤복,
연소담청. 조선의 미인을
사랑한 신윤복,
2009. p. 136.



〈그림 21〉 덕은공주 장옷.
문화재대관, 2006. p. 88.

씨(1664~1722), 경주 이씨(1684~1753), 전주 이씨(1722~179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장옷(19세기 말), 안동 김씨 분묘 발굴 장옷(19세기 초) 등이 확인되며, 전세유품으로는 단국대학교 소장 장옷 2점(19세기), 세종대학교 소장의 옥색 명주 장옷(19세기 말~20세기 초)과 청색 숙고사 장옷(19세기 말~20세기 초), 그리고 덕은공주의 장옷(19세기 초) 등 총 11점의 유물 사진을 확인하였다. 18세기 출토 유물에서 장옷의 진동은 26~29cm로 넓은 반면 19세기 이후 출토유물은 22~22.5cm로 진동의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림 21〉⁴⁰⁾의 19세기 초 덕은공주 장옷은 진동이 19cm로 극단적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단국대 소장 장옷⁴¹⁾과 세종대 소장 장옷은 진동이 28, 29.5cm⁴²⁾로 당시 저고리의 진동이 매우 좁았던 것과 무관했던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매로서의 기능이 없던 장옷의 소매도 저고리의 소매통이 줄어드는 유행현상과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흥미롭다.

2) 일본

일본의 복식에서는 총 26건의 풍속화, 실물사진 등을 통해 카즈키(被衣, かずき)에서 false sleeves를 확인하였다. 머리 위에 덮어쓰는 의류의 하나로서 카즈키는 헤이안(平安)시대부터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자가 외출할 때나 원행 시에 방한, 방풍, 방충 등 몸의 보호를 위해 덮어썼던 것이다.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광수에 끈은 것[垂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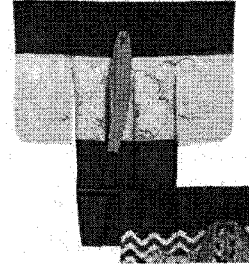
우치키(桂, うちぎ)를 카즈키로 사용하였지만,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들어와 코소데(小袖, こそで)가 일상 복이 되면서부터 코소데를 카즈키로 착용하였는데, 카즈키로 사용한 코소데는 키누가즈키(衣被, きぬがずき), 코소데가즈키(小袖被, こそでがずき)라고 하여 착용하는 옷과 그 명칭을 달리하였음이 확인된다⁴³⁾. 이처럼 무로마치 시대의 쓰개로 사용된 코소데 즉, 카즈키는 의복으로 사용된 코소데와는 독립적인 복식 아이템으로써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그 구성을 보면 코소데의 깃에 카츠라오비(鬘帶, かつらおび)를 달아 머리에 고정하기 쉽게 구성하였다⁴⁴⁾〈그림 22〉⁴⁵⁾. 소매의 형태는 〈그림 23〉⁴⁶⁾과 같이 봉어배래형이며 아름다운 무늬가 염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에도(江戸) 시대의 카즈키 역시 의복으로 사용한 코소데와 달리 깃을 앞길과 뒷길의 경계가 되는 어깨선에서부터 앞으로 10~15cm 정도 내려와 달아 머리에 덮어쓰기 쉽도록 구성하였다⁴⁷⁾〈그림 24〉⁴⁸⁾. 그러나 쓰개로서는 소매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즈키의 소매 형태는 코소데와 같이 봉어배래형에서 두리소매형으로 폭이 넓어지며 아름다운 무늬의 염색을 하였는데, 이는 광폭의 직조가 용이해짐에 따라 폭넓게 생산된 원단으로 소매를 더욱 넓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⁴⁹⁾ 의복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여⁵⁰⁾ 실용성이 없는 소매에도 염색을 구사한 일본 특유의 염색 미가 구현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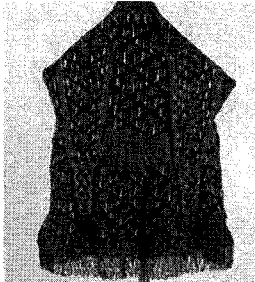
〈그림 22〉 코소테를 덮어 쓴 무가부인. *일본여성복식사*, 2004,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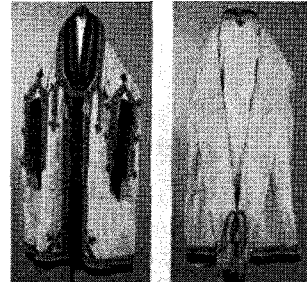
〈그림 23〉 六曲花見屏風の 부분. *일본여성복식사*, 2004, p. 86.



〈그림 24〉 카즈키 <http://blog.goo.ne.jp/>



〈그림 25〉 Faranghi. *여성 쓰개의 역사*, 1995, 참고자료



앞 뒤
〈그림 26〉 Faranghi. *아시아 전통복식*, 2004, p.193

3) 타지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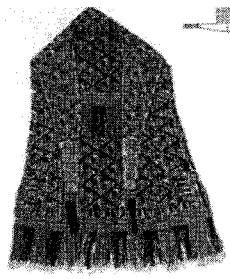
타지키스탄 복식에서는 도시인의 일상적인 외출복이었고, 부유한 가정이나 상류층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쓰개⁵¹⁾로 사용하였던 faranghi(파란자)에서 총 2건의 false sleeves를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장옷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완전히 성장을 한 후에 빨라트 오크와 차슈반드를 두르고 머리 위에 걸쳐 써 착용한 여성의 몸을 완전히 가린다.⁵²⁾ 앞길에 팔을 뻗 수 있는 트임이 있는데 그 주위를 자수와 술로 장식한다. 통형의 소매형태인 false sleeves는 〈그림 25〉⁵³⁾, 〈그림 26〉⁵⁴⁾과 같이 착용 시 긴 소매를 등 뒤로 넘겨 걸치는데 화려하게 자수가 놓여 있고 수구에는 술이나 자수 장식이 되어 있다. 소매가 겹으로 되어 있으며 어깨 부분에 숨을 넣기도 한다⁵⁵⁾.

4)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false sleeves는 국내의 다양한 부족의 여성용 쓰개에서 확인되며 총 16건의 유물사진을 분석하였다. 〈그림 27〉⁵⁶⁾은 요무토 부족의 베렌 제크로 높은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쓰개를 착용하는데 등 뒤로 매우 좁은 소매가 늘어뜨려져 있으며 양쪽 소매는 수구끼리 고정한다. 차이어피는 〈그림 28〉⁵⁷⁾의 쓰개로 테케 부족이 착용하며 높은 모자를 쓰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후 그 위에 머리부터 덮어 쓴다.⁵⁸⁾ 표면이 매우 화려한 자수로 되어 있으며 착용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젊은 여성들은 감색, 중년의 남자아이를 가진 여성은 황색, 노인들은 존경의 표시로 백색을 착용한다.⁵⁹⁾ 화려한 자수와 술이 달린 유난히 좁고 긴 소매가 등 뒤에 내려뜨려지며 소매끼리 끈으로 연결하여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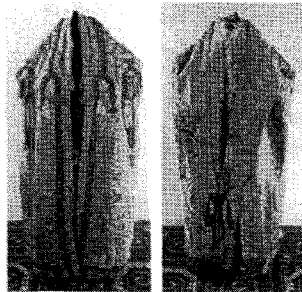
〈그림 27〉 베렌세크.
세계의民族衣裝의事典,
2006, p. 310



〈그림 28〉 툴바이.
세계의民族衣裝의事典,
2006, p. 311.



앞 뒤
〈그림 29〉 쿠르다.
세계의民族衣裝의事典,
2006, p. 311.



앞 뒤
〈그림 30〉 바랑자.
세계의民族衣裝의事典,
2006, p. 306.



〈그림 31〉 세라크.
세계의民族衣裝의事典,
2006, p. 306.

하기도 한다. 쿠루다는 결혼식에 사용되는 쓰개로 깃의 구성은 일본 에도시대의 카즈키와 비슷하나 〈그림 29〉⁶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쪽 소매가 머리 위에 위치하도록 덮어쓰는 특징이 있다. 등 뒤에서 끈으로 소매를 고정하는데 이 끈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부적으로 사용한다.⁶¹⁾

5)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false sleeves가 달린 복식은 paranja(파란자)로 총 5건의 유물사진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밤에 외출할 때 남자의 caftan을 머리부터 뒤집어쓰고 나가는 풍습이 있었다. 여성들이 paranja를 쓰개로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로, 이때부터 paranja가 중요한 복식 품목의 하나가

되었다. 유복한 여성은 8세부터 paranja를 착용하며 성인이 되면 얼굴을 chachvan⁶²⁾으로 가리고 paranja를 정수리부터 덮어쓰는데 〈그림 30〉⁶³⁾과 같이 장식용으로 좌우의 긴 소매를 등에 내려뜨린다. 러시아 10월 혁명(1917) 이후 여성해방운동의 하나로 paranja를 봉건적인 잔재라 하여 점점 착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현재는 나이가 든 여성만이 제라쿠를 착용하는데 이는 paranja보다 길이가 짧고 홑겹의 목면으로 된 실용적인 쓰개〈그림 31〉⁶⁴⁾로서⁶⁵⁾⁶⁶⁾, 그림에서도 홑겹으로 된 false sleeves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오스만튀르크

오스만튀르크의 false sleeves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세밀화와 유물사진 총 20점에서 그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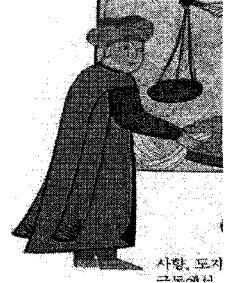
〈그림 32〉 카프탄, 이스탄불, 16세기 중반, 토프카피 궁 박물관 소장. 이슬람 미술, 2005, p. 378.



〈그림 33〉 Costume engravings made during travels in the East, 1587. 20,000 years of fashion, p. 246.



〈그림 34〉 토프카프 궁전 다반의 방에 모인 술탄과 고문들. 17C. 슬레이만, 2005, p. 48.



〈그림 35〉 이스탄불의 바자르, 16C. 슬레이만, 2005, p. 80.

〈표 2〉 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false sleeves의 특징

지역	나라별 특징		
	나타난 시기	복식	형태별 특징
한국	18~20C	장옷	① 외의였던 장의가 쓰개로 쓰임새가 변화하였으나 통형의 소매는 퇴화되지 않음. ②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며 진동의 폭이 줄어듦.
일본	12~17C	카즈키 사용된 우치기 코소데	① 여자가 외출할 때 사용한 쓰개로 헤이안시대에는 우치기를 카즈키로 사용하였으나 무로마치시대부터 코소데를 카즈키로 사용함. ② 소매의 형태는 봉어배래형에서 두리소매형으로 폭이 넓어짐.
타지키스탄	시원은 알 수 없고 현재는 결혼식, 공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	faranchi	① 상류층 여성들의 일반적인 쓰개. ② 어깨부분에 술을 넣기도 하며 자수와 술 등으로 장식함.
투르크메니스탄	공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	베렌제쿠 차이어피 쿠르타	① 부족마다 다른 쓰개를 사용하며 착장법 또한 모두 다름. ② 화려한 자수와 술을 달기도 하며 등 뒤에 소매를 고정시킨 끈은 부적으로 사용됨.
우즈베키스탄	19~20C	paranja	① 남자의 caftan을 쓰고 외출한 것에서 유래됨. ② 등 뒤에 고정하며 수구에 술과 자수 등으로 장식함.
오스만튀르크	16~17C	남성용 caftan	① caftan의 진동 부근에 절개선을 넣어 그 사이로 팔을 뻗은 후 나머지 긴 소매는 팔 뒤쪽에 늘어뜨림. ② 모피, 단추 등으로 장식함.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오스만튀르크의 가장 전성기로 아프리카, 유럽, 중근동 아시아를 아우르는 커다란 영토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때문에 의상도 그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False sleeves는 주로 남성들의 caftan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32〉⁶⁷⁾, 〈그림 33〉⁶⁸⁾과 같이 진동 부근에 절개선을 넣어 절개한 곳으로 팔을 빼고 발목까지 오는 긴 통형의 소매는 등으로 넘겨 늘어뜨린 모습이다⁶⁹⁾⁷⁰⁾. 무늬가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거나

〈그림 34〉⁷¹⁾에서 보듯이 false sleeves의 수구를 모피 등으로 장식하는 등 화려한 모습이 있는 반면, 〈그림 35〉⁷²⁾처럼 상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장식이 없는 단색의 원단을 이용한 모습도 나타난다. 오스만튀르크의 복식은 의상의 형태와 색상, 종류 등이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 신분, 직업, 종교, 종족에 따라 겹쳐 입는 옷의 벌 수와 세부적인 장식, 직물의 종류 등을 달리하는⁷³⁾ 등 계급, 지위, 종교적, 직업적 차이를 강조한 기록⁷⁴⁾이 있는데 담비

털과 같은 모피는 무슬림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⁷⁵⁾ 그러므로 false sleeves도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이는 <그림 35>와 <그림 34>의 인물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성들의 복식착용 자료는 드물고, 따라서 여성들 복식에서는 false sleeves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이슬람권인 오스만튀르크에서 여성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확인되는 false sleeves의 특징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용 쓰개에 달린 소매에서 false sleeves가 나타난다. 이는 아시아 기본복식인 전개형의 외의가 나라별로 그 쓰임새가 쓰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매가 탈락되지 않고 계속 사용된 결과이다. 한국은 내외법에 의해 여성들이 폐면을 해야 했고, 일본은 방한, 방풍 등 몸의 보호를 위해서 쓰개를 사용하였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세 이후 이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외의가 여성들에게 쓰개로 변환된 것으로 추측된다⁷⁶⁾⁷⁷⁾. 다만, 오스만튀르크의 false sleeves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달리 상류층 남성의 외의인 caftan에서 보이며 진동부분에 slash를 내어 그 사이로 팔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소매형태의 false sleeves는 팔 뒤로 내려뜨려 지는 형태라는 점과 출몰 시기가 16세기에서 17세기인 점 등에서 유럽의 false sleeves와 흡사한 점이 많다. 동양의 false sleeves는 <그림 36>과 같이 출현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며 한국과 일본은 시기별로 형태가 달라지는 데 반해 중앙아시아 지역과 오스만튀르크는 일정한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False sleeves의 유형분석

False sleeves의 유형은 나라별로 기능이나 장식의 방법 등에서는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나, 지역별로 보면 형태상 공통적인 요소가 파악되어 이를 묶어 정리하고 유형별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1. 동서양 false sleeves의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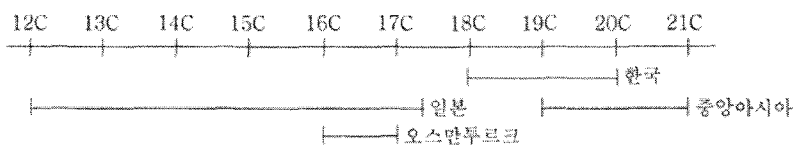
1) 서양

서양의 false sleeves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통형의 false sleeves가 진동 전체에 봉제 되어 있는 형태로 이는 또다시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false sleeves에 slash를 내어 팔을 그 사이로 내밀고 나머지 부분은 팔 뒤쪽으로 내려뜨리는 형태로 13~17세기에 걸쳐 남녀 모두의 복식에서 나타난다. 초기 slash는 팔을 빼기 위한 단순한 절개 선이었으나 15세기부터는 slash에 모피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둘째는 진동에 slash가 있어 그 사이로 팔이 빠져나오고 false sleeves 전체가 팔 뒤쪽으로 내려뜨려 지는 형태로 14~15세기 프랑스와 이탈리아 복식에서 확인되나 많이 보이는 유형은 아니다. 셋째는 false sleeves의 팔꿈치 아래쪽으로 또 하나의 자루형태의 소매가 달린 형태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16~17세기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도 그 모습이 확인된다.





두 번째는 망토처럼 긴 천이 팔의 뒤쪽에 내려뜨려 진 형태로서 15~17세기까지 유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주로 여자복식에 많이 사용된다.

서양에 나타난 false sleeves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은 <표 3>과 같다.



<그림 36> 동양지역 false sleeves의 등장 시기

<표 3> 서양에 나타난 false sleeves의 유형

false sleeves의 유형		도식화	나라별 출현 시기		
			나라	남	여
I	소매형태의 false sleeves		영국	13~17C	13~15C
			프랑스	15~16C	16C
			이탈리아	-	16C
			스페인	16~17C	-
	진동에 트임이 있어 그 사이로 팔이 나오는 형		영국	-	-
			프랑스	14C	14C
			이탈리아	-	15C
			스페인	-	-
	팔꿈치 부분을 탈착할 수 있는 형		영국	-	-
			프랑스	-	-
			이탈리아	-	16~17C
			스페인	-	16~17C
II	망토처럼 긴 천이 팔의 뒤쪽에 내려뜨려 진 형		영국	-	16~17C
			프랑스	-	16~17C
			이탈리아	15C	16~17C
			스페인	-	15~17C

2) 동양

동양에 나타난 false sleeves는 기본복식인 전개형 의복에서 나타나므로 false sleeves의 유형이 모두 통형의 소매의 형태를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나라와 시기별로 장식방법이나 소매의 형태 및 크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18~20세기에 모습이 확인되며 false sleeves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상의인 저고리의 소매통이 줄어들는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은 12~17세기 걸쳐 카즈키에서 그 모습이 확인되는데, 초기의 false sleeves는 사선배래를 가진 광수의 소매였으나 무로마치 시기에 가면 봉어배래형으로, 에도 시대에는 두리소매형으로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는 의외로 착용하였던 우치기와 코소데 소매형의 변화와 동일하다.

중앙아시아의 false sleeves는 출현 시기는 확실하

지 않으나 20세기까지 그 모습이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매우 좁고 길게 나타나며 긴 소매를 등 뒤에서 끈으로 고정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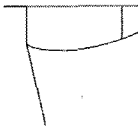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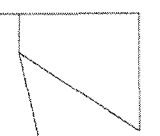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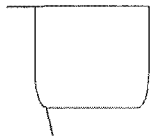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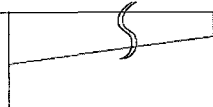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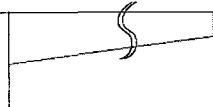

오스만튀르크의 남성용 카프탄에 나타난 false sleeves는 진동에 트임이 있어 그 사이로 팔이 빠져 나오는 형태로 서양 false sleeves의 유형 중 <표 3>의 I-②와 형태가 유사하며 수구가 발목에 닿을 만큼 매우 길다.

<표 4>는 동양에 나타난 false sleeves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2. False sleeves의 유형별 비교분석

형태를 중심으로 보면 false sleeves는 통형의 소매가 진동의 전체 혹은 일부에 매달려 있으나 팔을 꿰지 않는 소매형 false sleeves와 팔의 아래쪽으로 긴

<표 4> 동양에 나타난 false sleeves의 유형

나라	나타난 시기	도식화		
한국	18~20C			
일본	12~17C 중반	12~13C	14~16C	17C
				
				
타지키스탄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는 결혼식, 공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만튀르크	16~17C			

천이 내려뜨려 진 형태의 망토형 false sleeves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소매형 false sleeves

소매형 false sleeves는 팔의 일부를 감싸는 유형과 전혀 감싸지 않는 유형으로 나뉜다.

(1) 팔의 일부를 감싸는 유형

주로 유럽의 복식에서 나타나는데 false sleeves의 일부에 slash를 주고 그 사이로 팔을 내밀어 착용함으로써 소매가 상완의 일부를 감싸고 나머지는 팔 뒤쪽에 내려뜨려 지는 형태다. 도식화는 <표 3>의 I-①이며 예는 <그림 1,2,7>이다.

(2) 팔을 전혀 감싸지 않는 유형

False sleeves가 완전한 소매형태로 소매가 팔을 감싸지 못하는 경우와 착장방법으로 인해 소매에 팔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

① 팔을 감싸지 못하는 경우의 소매형 false sleeves

유럽과 오스만튀르크의 복식에서 보이는 유형의 false sleeves로서 이는 소매에 팔을 끼우지 않은 채 통형의 소매가 팔 아래로 내려뜨려 지는 경우인데, 두 가지 유형이 보인다. 그 하나는 진동에 달린 소매에 진동 선부터 slash가 시작되어 그 사이로 팔이 빠져나오고 팔꿈치 아래쪽에는 다시 자루 모양의 소매가 단추나 리본 등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은 탈착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표 3>의 I-③, <그림 10,11,16,17> 참조) 또 소매형 false sleeves 중에는 <그림 4,10~12,16~18>과 같이 어깨에 epaulette이 장식된 예가 있는데 이는 소매 자체를 필요에 따라 진동에서 떼어낼 수 있는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경우는 진동에 트임이 있어 그 사이로 팔이 빠지고 통형의 소매는 팔 아래로 늘어뜨려짐으로써 그림 상으로는 통형의 소매를 어깨에 꿰어진 것처럼 보이는 유형으로 유럽 13~15세기 남녀 복식의 일부(<표 3>의 I-② 참조)와 오스만튀르크의 남성용 caftan에서 확인되었다. 길이는 손목까지의 길이부터 땅에 끌릴 정도로 긴 형태까지 다양

하다. 이 경우의 false sleeve 중 전자의 예는 <그림 10~12, 15~17>이며, 후자의 예는 <그림 5, 6, 14, 32~35>와 오스만튀르크의 false sleeves이다.

② 팔을 감쌀 수 없는 경우의 소매형 false sleeves

이는 동양에서 나타난 여성용 쓰개에서 보이는 소매가 이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서 상의는 대부분 앞트임이 있는 평면구성의 전개형 의복을 착용하는데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라별 특정한 이유 때문에 외출 시 착용하는 전개형의 표의가 여성들의 쓰개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깃이 이마에 위치하는 착장방법 때문에 소매에 팔을 끼울 수 없게 되지만 소매가 퇴화되지 않고 오히려 의복의 일부로서 소매 통 너비에 변화를 주거나, 문양, 염색 등을 더하여 장식적인 false sleeves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소매형 false sleeves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나타나나 착장형식에 있어서 지역별로 특색을 보인다.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의 false sleeves는 상류층 사람들의 복식에서 확인되며 slash가 사용되는 것이 공통점이다. 유럽에서는 사치금지령에 false sleeves를 금지한다는 내용⁷⁸⁾이 있을 만큼 false sleeves에 모피, 보석, 자수 등의 장식을 한 예가 많으며, 오스만튀르크의 false sleeves는 술탄이 긴 소매를 뒤로 내려뜨려 바람에 펄럭거리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이 가진 권력의 신비로움을 강조했다⁷⁹⁾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의 소매형 false sleeves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성용 쓰개에서 나타난 false sleeves는 지역별로 장식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바뀌며 false sleeves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일본, 중앙아시아 지역은 자수나 염색을 다양하게 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점이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false sleeves는 쓰개의 장식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2) 망토형 false sleeves

크고 긴 천을 진동둘레 전체 혹은 일부에 연결함으로써 팔의 뒤쪽에 망토가 내려뜨려 진 것처럼 보

이는 유형으로, 이러한 망토형 false sleeves는 중세 유럽의 남녀 복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여성의 robe에 달린 망토형 false sleeves 중에는 그 중간을 징거주어 팔을 끼우기도 한 모습이 확인되나 이는 망토형 false sleeves의 형태를 변형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망토형 false sleeves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망토형 false sleeves는 특히 모피, 보석, 자수 등으로 장식된 예가 많고, 구성의 특성상 안쪽도 겉으로 나타나는 대형의 망토형 false sleeves는 겉은 bodice와 동일한 원단을 사용하지만, 안쪽은 겉감, inner-wear의 sleeves와 이색(異色)의 천 등을 사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를 과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길이는 팔꿈치, 손목, 허벅지, 땅에 끌릴 정도의 길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4>와 같이 팔꿈치까지 길이의 false sleeves는 <표 3>의 III-②형태에서 팔꿈치 아래에 단추나 리본으로 붙어 있던 부분을 떼어버린 형태로 생각된다. 망토형 false sleeves의 예는 <그림 3, 4, 8, 9, 13, 18>이다.

이상의 false sleeves관해 분석된 내용을 <표 5>로 제시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동서양 여러 나라의 복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false sleeves의 특징과 유형을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False sleeves는 유럽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남녀 복식과 나라별 시기를 달리하면서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용 쓰개와 오스만튀르크의 남성용 caftan에서 그 모습이 확인된다. 유럽은 15세기를 전후하여 장식이 다양해지고 부피도 커지게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인체미를 강조하게 되고 복식이 화려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false sleeves가 등장하고 17세기 이후 false sleeves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는 그 당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네덜란드의 검소하고 활동적인 의복이 유럽 패션에 영향을 끼쳐 복식 실루엣이 줄

<표 5> False sleeves의 유형과 특징 분석

유형분류		지역	착장 용도	그림자료	형태 도식화
소매형	팔의 일부를 감싸는 유형	유럽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부와 권력의 과시		
	팔을 전혀 감싸지 않는 유형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팔을 감싸지 못하는 경우	오스만 튀르크		
	팔을 전혀 감싸지 않는 유형	한국, 일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우즈베키 스탄	장식성 강조		
망토형	-	유럽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부와 권력의 과시		

어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false sleeves는 전개형의 외의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쓰개로 변화하는데 일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수나 염색을 다양하게 하는 예를 볼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false sleeves의 크기 및 형태에서 상의인 저고리나 코소데의 소매와 변화의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스만튀르크는 다른

아시아 지역과 달리 상류층 남성 caftan에서 나타나며 계급별로 장식에 차이가 있고, 형태상 slash가 있거나 등 뒤로 길게 늘어뜨려지는 점 등이 유럽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False sleeves의 형태별로는 소매형 false sleeves와 망토형 false sleeves로 분류된다. 소매형 false sleeves는 다시 착장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팔의 일부를 감싸는 유형과 팔을 전혀 감싸지 않는 유

형으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착장방법에 의해 팔을 감싸지 못하는 경우와 감쌀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유럽과 오스만튀르크의 소매형 false sleeves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아시아지역의 여성용 쓰개에서 보이는 false sleeves는 자수, 염색, 술 등을 사용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망토형 false sleeves는 유럽의 남녀 복식에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길이가 매우 다양하고 보석, 모피, 자수 등으로 장식하여 착장자의 권위나 부를 과시하는 효과를 주었다.

유럽지역 여러 나라의 false sleeves는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예가 많은데, 이는 국가 간의 동맹을 위한 왕실끼리의 결혼, 혹은 전쟁 등으로 인해 복식 문화에도 교류나 융합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럽지역의 false sleeves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오스만튀르크는 유럽지역과의 전쟁이나 마찰로 인해 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구체적인 복식 관련 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16세기 이래로 유럽의 예술이나 건축, 종교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⁸⁰⁾는 내용과 오스만튀르크의 여성들은 18세기에 들어서야 서양의 복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선행연구⁸¹⁾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16~17세기에 보이는 오스만튀르크의 false sleeves는 유럽의 영향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용 쓰개에서 나타나는 false sleeves의 경우에는 false sleeves가 등 뒤로 내려뜨려 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나 나라별 출현 시기에 차이가 있고 쓰개의 착용 동기나 소매의 장식, 형태 및 길이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Mary Brooks Picken (1973).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pp. 340-341; Hanging sleeves 앞에 팔의 지나갈 수 있는 갈라진 틈이 있는 코트소매, 흔히 팔은 화려하게 장식된 셔츠나 블라우스가 감싸고 있다. Hanging sleeve는 15세기에 일반적이었으며, 옆에 늘어뜨려져 있고 화려한 자수가 되어있다. R. Turner Wilcox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86. Jerkin or jacket had hanging sleeves. (in French Renaissance)

박선애 (1982). *Sleeves의 복식사적고찰 및 구성방법: 고대 Egypt부터 19세기까지 여성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3. 포파르디 sleeves의 형태는 타이트한 것이 많았고 윗부분에는 slash되어 팔을 그 사이로 내놓음으로써 행잉 sleeves라는 裝飾的인 형태를 이루었으며(후략)

- 2) Francois boucher abrams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p. 243. Plate 527. shows a gown of Spanish inspiration, with falsesleeves, while the ruff is similar to Dutchmodels.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47. The Turkish costumes sketched by the traveller(plates 331-4) show that men and women wore the same outer caftan in rich stuffs, with hanging falsesleeves. R. Turner Wilcox. *Ibid.*, p. 83. Crimson velvet gown-gray fur-falsesleeves
자료검색일 2010.03.21 http://eng.ethnomuseum.ru/gallery659/1196/1899_1883.htm Among Turkmen women and women of other semi-nomadic peoples the head coat looked like a robe with falsesleeves.
자료검색일 2010.03.21 http://www.turkotek.com/misc_00038/wedding_dress.htm Uzbeks also use this type of cloth with falsesleeves.
- 3) Fendi, 01/02 F/W, *Gap press*, 35, p. 31.
- 4) Jil Sander, 07/08 F/W, *Gap press*, 84, p. 34.
- 5) Vivienne Westwood, 02/03 F/W, *Gap press*, 44, p. 108.
- 6) 김소현 (2003). *실�크로드의 복식 호부*. 서울: 민속원, p. 220.
- 7) 敦煌文物研究所 (1992). *敦煌莫高窟 第1卷*. 東京: 平凡社, 第290窟(北周)
敦煌文物研究所 (1992). *敦煌莫高窟 第2卷*. 東京: 平凡社, 第303窟, 第304窟(隋)
- 8) John Peacock (1994). *Costume 1066-1990s*. London: Thames & ahudson Ltd, p. 15.
- 9)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pourpoint이라고 한다.
- 10) John Peacock. *op. cit.*, p. 30.
- 11) 정홍숙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161.
- 12)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39.
- 13)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1980).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역 (1998). *세계 패션사 1*. 서울: 자작아카데미, p. 144.
- 14) R. Turner Wilcox. *op. cit.*, p. 53.
- 15) *Ibid.*, p. 48.
- 16) *Ibid.*, p. 83.
- 17) James Laver (2002). *Costume and fashion: a concise history*. 정인희 역 (2007). *서양 패션의 역사*. 서울: 시공사, p. 108.
- 18) Raymond Carr (2000). *SPAIN: A HISTORY*. 김원중, 황보영조 역 (2006). *스페인사*. 서울: 까치글방, 참고자료.
- 19)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99).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 172.
- 20) 자료검색일 2010.10.26 자료출처 <http://commons.wiki>

- media.org/
- 21)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20.
 - 22) 신상옥 (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 161.
 - 23)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55.
 - 24) Richard Stemp (2006). *The secret language of renaissance*. 정지인, 신소희 역 (2007). *르네상스의 비밀*. 서울: 생각의 나무, p. 189.
 - 25) 정인희 역. *앞의 책*, p. 75.
 - 26) 신상옥. *앞의 책*, p. 70.
 - 27)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04
 - 28) Elizabeth Rodini, Elissa B. Weaver (2002). *A Well-Fashioned Image*. Chicago: The david and Alfred Smart Museum of Art, p. 31.
 - 29)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50.
 - 30) *Ibid.*, p. 250, p. 252.
 - 31) Christopher Duggan (1994). *A Concise Histor of Italy*. 김정하 역 (2001). *미완의 통일 이탈리아사*. 서울: 개마고원, p. 96.
 - 32) 자료검색일 2010. 10. 23 자료출처 blog.joinsmsn.com
 - 33)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45.
 - 34) *Ibid.*, pp. 163~164.
 - 35) 강경자, 정복남, 추미선 (1984). 복식변천 과정에서 Sleeve Design의 특징 (II)-14~15세기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2(2), p. 4.
 - 36) 정홍숙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165~166.
 - 37) 류보영, 임상임 (2002). 조선시대 여성 폐면용 쓰개의 특징-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 (9/10), p.132.
 - 38) 조정옥 (2009). *조선의 미인을 사랑한 신윤복*. 서울: 아이세움, p. 59.
 - 39) *위의 책*, p. 136.
 - 40)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6). *문화재대관* 대전: 문화재청, p. 88.
 - 41)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명선* 下. pp. 119~120.
 - 4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앞의 책*, p. 167, p. 170.
 - 43) 丹野郁 (1980). *日本綜合服飾史*. 東京: 雄山閣出版社, pp. 65-66.
 - 44) 井筒雅風 (1989). *日本女性服飾史*. 이자연 역 (2004). *일본여성복식사*. 서울: 경춘사, p. 86.
 - 45) *위의 책*, p. 84.
 - 46) *위의 책*, p. 86.
 - 47) 자료검색일 2010. 3. 30 자료출처 <http://100.yahoo.co.jp/>
 - 48) 자료검색일 2010. 4. 26 자료출처 <http://blog.goo.ne.jp/tombo624/e/c69f4ff08a5575462782533b1ff245ba>
 - 49) 이자연 역. *앞의 책*, p. 108.
 - 50) *위의 책*, p. 117.
 - 51) 홍나영 (1995). *여성쓰개의 역사*. 서울: 학연문화사, p. 89.
 - 52)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p. 192
 - 53) *위의 책*, 참고자료.
 - 54) *위의 책*, p. 193.
 - 55) *위의 책*, p. 89.
 - 56) 丹野郁 (2006). *世界の民族衣裳の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p. 310.
 - 57) *Ibid.*, p. 311.
 - 58) *Ibid.*, pp. 310-311.
 - 59) Patricia Rieff Anawalt (2008). *The Worldwide Historu of Dress*. 한국복식학회 역 (2009). *세계 복식 문화사*. 서울: 예담, p. 148.
 - 60) 丹野郁, *op. cit.*, p. 311.
 - 61) 松本敏子 (1985). *世界の民族服2 關西衣生活研究會*. pp. 174-175.
 - 62) 말총으로 된 얼굴을 가리는 두꺼운 사각형의 스카프.
 - 63) 丹野郁, *op. cit.*, p. 306.
 - 64) *ibid.*, p. 306.
 - 65) 자료검색일 2010. 4. 26 자료출처 <http://www.sairam tour.com/news/gems/67.html>
 - 66) 丹野郁, *op. cit.*, p. 306.
 - 67) Jonathan Bloom and Sheila Blair (1997). *Islamic Arts*. 강주현 역 (1998). *이슬람 미술*. 서울: 한길아트, p. 378.
 - 68) Francois boucher abrams, *op. cit.*, p. 246.
 - 69) 한국복식학회 역. *앞의 책*, p. 56.
 - 70) 강주현 역. *앞의 책*, p. 379.
 - 71) Therese Bittar (1994). *Soliman, l'empore magnifique*. 변지현 역 (2005). *슬레이만*. 서울: 시공사, p. 48.
 - 72) *위의 책*, p. 80.
 - 73) 이은정 (2009). *오스만 황실 하렘과 여성, 1839-1908 -황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49-150.
 - 74) Donald Quataert (2000). *The Ottoman Empire, 1700-1922*. 이은정 역 (2008). *오스만 제국사*. 파주: 세계철, p. 114.
 - 75) 이은정. *앞의 책*, p. 151. 재인용.
 - 76) 홍나영. *앞의 책*, p. 87.
 - 77) 오춘자. *앞의 책*, p. 89.
 - 78) 정홍숙. *앞의 책*, p. 163.
 - 79) 강주현 역. *앞의 책*, p. 379.
 - 80) Patricia Crone, Robert Irwin, Stephen F. Dale, Sarah Ansari, K. N. Chaudhuri, Basim Musallam, Francis Robinson, Stephen Vernoit (1994).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rotu of Oslamic World*. 손주영, 송경근, 황병하 역 (2002).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서울: 시공사, p. 21.
 - 81) 이은정. *앞의 책*, p. 146.